

제 13 회 중국 성균관글백일장

접수번호: 2022 - CNI1132

한글 성명: 최우유

나를 설계해 주는 경기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경기가 필요하
다. 경기를 통해 인간은 경험을 쌓고
자신의 부족을 인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 ^{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자신감
을 쌓기도 하고 소속 집단을 위하며
영광도 얻을 수 있다. 내가 어렸을 때
부터 경기에 참가한 적이 많지만 나는
가장 설계해 주는 경기인 2018년에 국
경한 하나라 경기이다.
2018년에는 한국 인천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컵 타이틀이 열렸다. 중국에서
온 'IG'라는 팀은 실력이 강한 유럽
팀과 경기를 해야 했다. 누가 이 경기
에서 이기면 유럽의 드루피타 무한한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영광이
개인의 영광은 아니다.
'IG가' 이길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거기 없었다. 우리 팀이 새로 생긴 팀
이었다. 그리고 그 팀에는 중국 사람뿐

제 13 회 중국 성균한글백일장

접수번호: 2022 - CN1132

한글 성명: 최우유

만 아 니 나 한 국 선 수 도 득 병 있 었 다
언 어 가 달 라 서 그 들 의 교 유 도 배 우 어
려 였 다. 서 로 에 대 해 잘 안 고 친 해 지 려
했 는 시 간 이 필요 했 다. 다행 히 다 섰 형
보 득 착 하 고 열 정 적 인 사 람 이 다. 그 들 은
서 로 돕 고 함 께 전 수 를 분 석 했 다. 국 적
은 불 문 하 며 서 로 를 신 리 하 는 좋 은 친
구 가 되 었 고. 중 국 과 한 국 의 공 동 명 예
를 위 해 분 투 했 다.
경 기 하 는 그 날 이 나 에 게 깊은 인 상 을
남 겼 다. 우 급 팀 의 실 력 이 너 무 좋 아 서
우 리 팀 이 처 음 에 문 정 에 빠 졌 다. 상 대
방 은 우 리 의 전 수 를 잘 안 고 대 처 한
것 같 았 다. 우 리 팀 이 패 배 에 직 면 했 지
만 아 무 도 포기 하 지 않 았 다. 한 국 에 서
본 송 의 진 선 수 가 시 켜 대 로 모 른 사
람 들 이 열 심 히 했 다. 게 임 에 서 득 너 워 하
지 않 고 통 감 하 게 강 적 과 다했 다. 그 들
은 팀 톨 레 이 에 중 심 을 두 었 다. 필 요 한
때 남 이 성 공 을 위 해 희 생 하 도 후 회 하

제 13 회 중국 성균관글백일장

접수번호: 2022- CN1132

한글 성명: 최우유

지, 잃었다. 게임에서 졌어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정세를 전환시켰다. 그들의 완강한 의지 덕분에 우리는 이 경기에서 이겼다. 나를 포함해 모든 시청자들을 선례게 했다. 다섯 선수가 같이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 누구나 감동되어 눈물이 났다. 이것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이 세계 챔피언에 오른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기에서 매우 선례게 하는 것은 그 명예만 아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강한 상대를 만나도 용기를 내야 하며 공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 봐야 한다는 것은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팀워크의 중요성도 알 수 있다. 다섯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하고 협력했다. 한 사람이 적어도 모든 실패할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자신만의 이익을 중요시하면 안 된다.

제 13 회 중 국 성균한글백일장

접수번호: 2022- CN1132

한글 성명: 최우유

[illegible]